

[목회실에서]

“Wesley Wing”

김영훈 목사

오늘 헌당하는 웨슬리 윙(Wesley Wing)은 오랫동안 “웨슬리 홀(Wesley Hall)”로 불려졌었습니다. 우리교회 초창기에, 미국인 교회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려야 했던 설움과 아픔을 겪게 되면서, 자체성전의 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980년 4월, 이를 위한 research 팀을 구성하여 성전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던 중, 1982년말, 마침내 현 우리교회가 위치한 대지와 작은 교회건물(William Watters UMC)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후, 협소한 예배장소를 해결하고자 1차 성전건축(1985년, 현 순원친교실)을 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당시 담임이셨던 조영진 목사님의 비공식적인 제안을 따라 이전의 작은 건물을 “웨슬리 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2차 증축공사(1990년, 순원친교실 증축), 3차 성전건축(1998년, 현 본당건물), 그리고 4차 건축(2021년, 웨슬리 윙)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홀(Hall)이라는 작은 장소의 개념에서 “Wing”이라는 부속건물의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예배실로 활용되는 Multi purpose hall 을 전병구 장로님을 기념하면서 “BK Hall”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윙”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본 건물 옆에 붙어있는 부속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이 건물에 대한 몇가지 바램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Wing”은 날아 오를 수 있게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교회와 사역들이 오늘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니어로부터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여 우리교회가 다시금 신앙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비상하는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세운 곳이기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교회의 다음세대가 힘차게 날아 오르면 좋겠습니다.

전병구 장로님을 기념하는 Display 에 그분이 그리신 그림을 넣었습니다. 독수리가 그 멋진 날개로 하늘을 가르는 그림입니다. 그 옆에 이사야 40:31 을 적어넣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헌당하는 웨슬리 wings 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교회가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 줄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